

모금과 구호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인 사 말 씀



우리나라는 매년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을 당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예방과 사후대책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는 어려운 것 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크고 작은 재난이 닥칠때마다 온국민이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재해를 극복해 왔으며,

뜨겁고도 아름다운 동포애와 환난상구의 오랜전통은 오늘에도 연면히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협의회는 지난61년 이래 재해민구호를 위하여 국내외 각계각층으로부터 기탁된 의연금 8백억원과 의연품 1천만점(130억원 상당)을 종합구호 계획에 따라 재해지구에 신속하게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50여종의 준조세적 성금 징수로 기업체와 국민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던 각종성금이 금년부터는 전면 폐지되고 인보상조의 이웃돕기 모금과 재해의연금 모집만이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보살피는데 십시일반이 되어야 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회에서 모집된의연금품의 사용내역을 간추려 보고하여 드립니다.

1989년 2월 20일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장 유건호